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바나바 이야기 성경: 사도행전 11장 19-26절

Tag: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19-26)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는 구브로(키프러스) 출신이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다. 그는 레위족속의 후예이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다.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행4:36)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으로 ‘파라클레시스’를 한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 명사의 남성형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성령님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이다.

뜻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다.

바나바는 별명답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킨 자이다. 당시 사도들은 사울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 했는데, 바나바가 담대하게 행동했다.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행9:27)

사울이 공식적인 선교 업무를 담당하게 도운 것은 바나바의 노력이다.

안디옥에서의 사역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뿔뿔히 흩어졌는데,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런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키프러스(우리나라의 강화도 같은), 구레네(현재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에 있는 도시, 이집트 서쪽)에서 온 몇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자신들의 출신이 이방이었으므로)

-그러자 이방인의 전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키프러스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방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양적인 부흥을 이루자,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같은 처지의 이방사람 출신이라면 사울이 있다. 바나바는 사울이 생각났다. 당시 사울은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지체없이 사울에게 갔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안디옥에서의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너의 지식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이 안디옥교회로 와서 1년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제자를 양육하였다.

그후 예루살렘교회가 가뭄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구제헌금을 하여 두 사람이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한다.

두 사람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려오는데,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알려져 있고, 바나바의 생질이며, 1차 전도여행때 수행원이었고, 후에는 베드로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다가 마가복음을 저술한다.

사실 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점점 바울의 영향력이 커가서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의 방향을 바울이 쥐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이 깊었던 만큼 갈라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가가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 준 셈이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바울 주도적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일구게 된 선교지를 지속 관리하는 사역에 남게 되고, 바울은 새롭게 선교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침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지만, 그 후에 누가와 동행해서 선교여행에 올인하게 되고, 누가가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나바의 행적은 소외된다.

그러나 바나바도 나름대로 훌륭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였고,

또한 생질 마가는 바나바의 보살핌으로 잘 성장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형편껏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바나바 사울 행 13:7까지 -항상 바나바가 먼저 언급됨

사울 -> 바울 행 13:9

바울 바나바 행 13:43 -처음으로 바울이 먼저 언급됨 12개 중 3개만 바나바가 먼저 언급됨

바울은 설교자, 바나바는 선지자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13:1)

바나바는 선지자, 사울은 교사였을 가능성이 있음.

<찬양예배>

제목 :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 성경: 사도행전 15장 35-41

Tag: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행 15:35-41)

1. 이방 출신 바나바

-바나바는 키프러스 출신이다. 후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인이 된다.

-그는 상당한 재산가였을 가능성이 큰데, 초대교회를 위해서 거액을 헌금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의 집안이 상당한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커서 그 다락방만 120명의 제자들이 들어가 예배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독실한 유대교 가정이었기 때문이

었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이들이 신실하고 율법적이지 않고 대단히 아량이 큰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방적일 것, 성실할 것, 이해심이 클 것,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

2.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사람

-사울을 세움.

-사울은 바나바보다 지식과 학문, 열정에서 뛰어났다.

-사울은 관용에서 바나바보다는 덜하였고, 관계 측면에서 율법주의 자들에 대한 태도가 완강하였다.

-사울은 비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잘 용납해 주었고, 사울의 단점을 커버해서 결과적으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나바는 사울과는 매우 다른 마가도 키워냈다.

-마가는 철없는 젊은 시절을 보냈고, 자기 주관이나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마가는 힘겨울 때 어머니에게 돌아간 적이 있다. 아직 그에게는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해야만 하는 한 맺힌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스데반의 죽음 같은)

-그런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도움도 받고 달레면서 지도하는 끈기를 바나바가 보여 준 것이다.

-바울도 후에는 마가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마가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후에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로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가복음까지 기술하게 된다.

3.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였다.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해 내어 그 문제를 해소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은사가 있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특화된 은사를 개발해야 한다.

-우선 목사는 설교를 특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한 홍보.

-다음으로 찬양에 대한 특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돈이 더 들어가지만, 시설에 대한 특화를 이루어야 한다.